

# 金松의 生涯研究

林 茂 出

## (目 次)

一. 序 論	4. 제 4 기 (1940~1949) 小説과 「白民」 시대
二. 生 涯	5. 제 5 기 (1950~1969) 文學絶頂時代
1. 제 1 기 (1908~1925) 萌芽時代	6. 제 6 기 (1970~1988) 獨居時代
2. 제 2 기 (1926~1929) 日本留學時代	三. 結 論
3. 제 3 기 (1930~1939) 放浪과 회곡 시대	

## 一. 序 論

회곡 작가이면서 小説家인 金松은 우리 學界에서 잘 알려지지 않은 인물이다.<sup>1)</sup>

사실 1910년에서 1930년대 作家는 學界에 활발한 논의의 대상이 되고 있지만, 1940년대를 전후해서 작품 활동이 비교적 왕성했던 作家는 40여 명<sup>2)</sup>이 있으나, 고작 郭夏信, 朴容九, 朴鍾和, 孫素姬, 李箕永, 林玉仁, 崔仁旭, 崔泰應, 黃順元 등 몇몇 작가만이 논의의 대상이 되고 있을 뿐이다.

그런데, 우리 문학이 새롭게 싹틔던 20~40년대 작가들에 대한 재조명이 요즈음 활기를 띠고 있는 추세에다가 (玄鎭健, 金東仁, 廉想涉, 蔡萬植, 崔曙海 등) 남·월북작가들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져 우

1) 학계에서는 오직 조동일의 「한국문학통사」에 金松을 <극작가로 출발해서 소설가가 되었다>라고 소개하고 있는데 작품의 소개는 회곡에 중점을 두고 있다.

조동일, 「한국문학통사」5, 지식산업사, 1988, pp. 359-361 參照

2) 姜鶴中, 姜亨求, 康信哉, 郭夏信, 具小路, 金光洲, 金來成, 金萬善, 金松, 金永錫, 金學鐵, 朴淵禧, 朴容九, 朴鍾和, 石仁海, 薛貞植, 孫素姬, 宋影, 安懷南, 嚴興燮, 李根榮, 李箕永, 李石薰, 任西河, 林玉仁, 張德祚, 全洪俊, 鄭飛石, 鄭人澤, 池河連, 崔永秀, 崔仁旭, 崔泰應, 許俊, 洪九範 黃順元 등이 있다.

리 文學史의 복원에 밝은 전망을 안겨주는 시대 상황을 맞이하고 있다. 아울러 이제까지의 연구대상이 몇몇 이름 난 작가로만 한정되었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우리의 시야에 묻혀 있는 作家들도 발굴해서 우리 現代文學史의 빈자리를 자리매김해야 할 필요성도 느끼곤 한다. 이에 가장 책임자가 극작가이자 원로소설가인 金松(1908~1988)이다.

1945년 민족해방은 30년대 암흑기 문학을 청산하고 새로운 민족 문학 수립을 가능케 하는 전기를 마련해 주었다. 그러나, 해방과 함께 정치가 좌·우익 진영으로 양분되자, 우리 문단에서도 좌·우익 분열상은 극도에 달했었다. 이러한 와중에도 金松은 유일하게 민족진영을 대변하는 잡지를 發行하여 4년 6개월간 민족주의 문학 운동의 기수가 되고, 우리 文壇에 새바람을 일으키는 등 60여년간 예술(문학)에 정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文壇에서 「白民」誌 발행인으로, 「男寺黨」이란 작품을 쓴 小說作家이다' 라는 정도로 알고 있을 뿐, 그 당시 한국 문단을 함께 이끌었던 다른 작가들에 비해 그에 대한 문학적 평가 역시 全無한 상태이다.

그는 1930년, 22세 때 희곡 「地獄」을 연출하고, 소극장 운동을 전개하면서 日帝에 항거했고, 1935년, 27세 때 희곡 「국경의 주막(新人文學 1935. 8)」을 발표하여 문단에 등단하였다. 1941년 小說로 전향, 「野談」에 「石刀의 由來」를 발표하는 등 사망(1988)할 때까지 小說 作品만 120여 편을 남겼다.

이에 筆者가 金松의 生涯를 研究함으로써 그에 대한 本格的인 作品研究의 出發점을 세우고 同學들의 그에 대한 研究資料의 일부분이나마 제공하고자 하는 것이다.

柳炳奭의 「어느 作家의 生涯가 全然 整理되어 있지 않다면, 그의 作品의 本格的인 研究는 出發점을 찾지 못할 것이며, 한 발짝도 앞으로 나가지 못한다. 그리하여 아직도 作家의 個性과 生活 곧 生涯에 對한 研究가 文學研究의 最高, 最良의 方法으로 採擇되며, 또한 存在理由를 갖는다.」

<sup>3)</sup>는 主張에 同意하면서 이 生涯 研究가 해방 직후<sup>4)</sup>라고 하는 時代의 상황을 가장 구체적으로 인식하고, 유일하게도 개인의 私財를 털어 가며 잡지 「白民」을 발행하고, 한평생 문학과 함께 살다 간 金松을 再評價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筆者는 계속하여 그의 文學的 事實을 실증적

3) 柳炳奭, 「沈薰의 生涯研究」, 국어교육 14, 한국국어교육연구회, 1968, p. 11 參照

4) 여기서 筆者는 해방 직후를 1945. 8. 15해방~1950. 6. 25 사이의 기간으로 편의상 설정한 것이다.

으로 정리하는 作業을 계속할 것이다.

## 二. 生 涯

### 1. 제1기(1908~1925) 萌牙時代

1908年 7月 10日<sup>5)</sup> 함경남도 咸洲郡 州西面 鶴村里에서 4男1女 中 長男으로 태어난 金松은 국민학교에 入學하기 이전에는 祖父(金濟升)<sup>6)</sup>로부터 명심보감을 배웠다. 父親(金昌萬)<sup>7)</sup>에게서 千字 無題詩, 童蒙先啓 啓蒙篇, 小學, 大學, 中庸 등을 배워 익혔다.

여섯 살 때(1915)사립 보광학교<sup>8)</sup>에 들어가서 상투쟁이들 속에 끼어 일본말, 산술같은 것을 배웠다. 그 후 그는 아버지를 따라 鶴村里에서 함흥으로 이사를 하였고, 함흥 시내에 있는 함남보통학교를 졸업하고 함흥고보에 들어갔다.

金松은 함흥고보에 다니면서 말썽 많은 인물의 표본처럼 되었다. 교과서 수업은 충실하지 않고 전형적인 문학 소년·소녀처럼 신문과 잡지와 소설에 반했다. 잡지 「킹구」신조 문고 등에 탐닉했고, 우리 것으로는 춘원의 無情 등을 열심히 읽었다.<sup>9)</sup> 특히 수업시간에 이런 소설을 탐독하다가 몇 번이나 정학을 당하기도 하였다.

그는 말썽을 많이 부린 중에도 각반을 차라고 하는데 이행하지 않았고 구두도 소위 「아미아게」를 신어야 하는데 어른들이 신는 단화를 신었다. 교련 선생은 늘 金松을 벌 주었다. 동아일보에 단재 신채호(丹齋 申采浩)의 조선 역사초가 연재될 때 그것을 매일 오려서 스크랩 북에 붙였다.

5) 趙靈巖은 「韓國代表作家傳」, (廣文社, 4291), p. 93-94에서 <김송이 올 해 마흔 세살이니 경술생(庚戌生)이요, 경술생이나 나라망하던 해에 부친 김창만(金昌滿)의 장남으로 태어났다.>라고 주장하는데 경술생이면 1910년이 된다. 그런데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金松의 慶州金氏家乘과 주민등록표에는 1908年 7月10日로 되어 있다.

6) 趙靈巖의 前掲書 p. 94에 의하면 金濟昇으로 되어 있는데 「鶴村慶州金氏家乘」p. 104에 의하면 金濟升으로 되어 있다.

7) 趙靈巖의 前掲書 p. 94에 의하면 金昌滿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鶴村慶州金氏家乘」p. 104에 金昌萬으로 되어 있다.

8) 사립보통학교는 오늘날의 사립유치원의 한 이름이다.

9) 趙靈巖의 前掲書 p. 75에 의하면 金松은 <춘성노자영(春城蘆子泳)의 「황야에 우는 소조」나 「불사조」나 하는 따위의 소설을 읽고 크게 감격하였다.>고 하는데 필자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위의 두 작품은 노자영과 관계가 없었음.

그리고 열심히 읽었다. 드디어 4학년이 되던 해에 정학을 당하고 일본으로 건너갔다.<sup>10)</sup>

그런데 金松은 조부의 인자한 손에서 자란 탓으로 부모의 따뜻한 사랑을 모르고 있었다. 그의 조부는 평생 흙 속에 파묻혀서 흙을 사랑하고 살았다. 술, 담배, 오락 잡담 같은 것도 모르고 묵묵히 일만 하는 인물이었다. 낮에는 농토를 가꾸고, 밤에는 책을 보면서 새끼를 꼬고 명석을 틀었다. 「논어」「맹자」「동의보감」같은 漢書를 즐겨 읽었으며 의술을 배워 손수 침도 놓아주고 약을 짓기도 하였다. 金松은 祖父의 이러한 근면성과 검약성을 한평생 이어 받았다.

반면에 金松은 아버지 金昌萬에 대해서는 반항적이었다. 金昌萬은 父의 家業을 이어받은 한의사로서 항상 자식에게는 엄했다. 엄격한 성격에 욕심도 많았다. 훌륭한 자식을 만들겠다는 그 욕심이 父子間의 대화를 막았던 것이다. 이로 인하여 金松은 끝내 日本으로 유학 갈 결심까지 한 것이다.

특히 金松의 父는 그의 祖父와는 성질이 정반대였다. 술, 담배, 오락 등을 즐기고 친구와 어울리는 것을 좋아했으며, 오직 돈 벌고 권세잡는 것을 추구하며 산 분이다. 심지어 長男(金松)이 예술계를 지망하는 것을 반대하고 법학을 공부해서 권력을 잡고 돈을 벌어 잘 살라고 요구했다. 「나의 뜻을 따르지 않고 예술을 공부한다면 너는 내 아들이 아니다」<sup>11)</sup>라고 말하면서 여비(日本에 가는데 필요한 돈)조차 주지 않았다. 그 만큼 자식에게 기대하는 것이 컸다.

金松의 나이가 15살이자 父인 金昌萬의 나이가 36살 때, 그의 조부 金濟升은 별세했다. 金松은 할아버지가 돌아 가셨어도 오랫동안 흠모했으나, 아버지는 미워하고 잘 따르지 않았다. 金松이 1927年 일본 유학 후 여름 방학을 맞이하여 귀향(歸鄉)하였지만 嚴父의 잔소리가 듣기 싫어서 일주일도 있지 못하고 다시 일본 동경으로 건너갈 정도로 부친과의 관계는 원만치 못했다.

10) 趙靈巖은 前掲書 p. 75에서 <학교를 죽어라 하고 가기 싫고 해서 돈 삼십원을 훔쳐 가지고 일본으로 뛰었다.>라고 했다. 그러나 사실여부는 확인할 수가 없다.

11) 「自傳的文藝半世紀」新東亞(79. 12) p. 239 金松은 1979년 12월호~1980년 8월호 「新東亞」를 통하여 「自傳的文藝半世紀」를 連載 發表한 바 있다. 筆者는 이것을 인용할 경우 편의상 「新東亞」라 칭한다.

## 2. 제2기(1926~1929): 日本 留學 時代

1926年(18세 때), 金松은 완고한 아버지의 반대를 무릅쓰고 渡日하였다. 그의 渡日 동기는 첫째, 日本 대학에 예술과가 신설되었다는 광고를 보고 연극을 공부하기 위한 것이며, 둘째, 嚴父의 계획하고 짜놓은 틀 속에 갇혀 있는 것이 싫어서였다.

그는 日本에 도착하는 즉시 車學路<sup>12)</sup>의 셋방에 얹혀 살면서 日本大學 예술과에 입학, 연극과 희곡 공부를 하였다. 그 해 여름 방학 때에는 '志摩東洋一行'이라는 검극단(劍劇團)에 입단함<sup>13)</sup>으로써 연극에 入門한다.

1927年 여름 방학때는 잠시 귀국하여 서울 본정(충무로)에 있는 조선 키네마로 김태진(金兌鎭)<sup>14)</sup>을 찾아 갔으나(김태진의 편지를 받고 만나기 위하여) 김태진은 만나지 못하고 尹逢春을 만난다. 金松은 尹逢春의 제안으로 「금붕어」촬영반에 따라 다님으로써 영화에도 入門하게 된다. 이해 자기 이름을 金金松에서 金松으로 改名하였다.<sup>15)</sup>

鵲村慶州金氏 家乘을 보면, 金松의 형제는 모두 이름 끝이 「松」으로 통일되어 있다. 次男 金白松, 三男 金玄松, 四男 金石松이다. 金松은 長男으로서 金金松이다. 그는 金松이라고 改名했는데 그 이유는 2가지가 전해진다. 하나는 예술을 하자니 모든 것이 복잡하였다. 그래서 단순한 것을 동경하다 보니 외자 이름으로 바꾸었고, 또 하나는 自身을 金과 같이 변함 없고 굳은 민족정신을 상징하는 육지의 소나무(금송)라고 생각해서 金松으로 바꾼 것이다.

1927년 여름 방학을 마치고 9월 初에 다시 日本으로 돌아온 金松은 東京 高圓寺에 있는 고향 친구들의 합숙소에서 자취생활을 시작했다. 새벽

12) 高普時代に 金松과 同窓이었으며, 무정부주의 사전으로 국내에서 퇴학을 당해 1년 전부터 땅 팔아 가지고 동경에 와 있었다.

13) ①목적: 무전여행 ②한 일: 김송은 무대 뒤에서 대본이나 읽어주고 가끔 엑스트라로 등장하여 칼에 맞아 쓰러지는 단역을 했다. ③기간: 여름방학동안(7월~8월까지 2개월간) ④효과: 극단을 따라 여행하는 사이에 日本 농촌과 도시의 풍습을 전문할 수 있었다.

14) ①영화배우 南宮雲의 本名 ②羅雲奎와 함께 「아리랑」에 주연하여 일약 인기배우가 된 무성영화시대의 영화인 ③金松과는 고향 친구이다.

15) 1937년 어느 여름 金松은 합흥에서 국민학교 강장을 빌어 金東仁의 「歷史와 文藝」라는 주제의 강연회 개최를 추천했다. 저녁에 金松은 자기집에서 金東仁과 대화하는 가운데 지금 부르는 그의 이름이 아호임이 밝혀진다. (新東亞(1980. 2)p. 198 참조)

에는 우유배달, 저녁에는 신문을 배달하면서 학비를 조달했다. 이 때 돈이 생기면 문학서적 「新興文學全集」 「世界戲曲全集」 「입센전집」 등을 구입하여 탐독하였다.

1928년, 그는 學生小劇場을 조직하는데 참여하게 된다. 主動者는 安漢이며, 회원은 金松, 申石艸, 韓在德, 金承一, 李貴禮, 鄭河善 등 20세의 동갑나기 유학생들이었다. 그들은 단막극을 번역하고 연습하였다. 作品은 영국 작가의 「日出」, 독일작가의 「荷車」, 일본작가의 「거지와 꿈」 등이었다. 형편이 좋으면 공연을 하기로 정했는데, 실제로 공연까지 한 일이 있는 지는 잘 알려지지 않고 있다.

한편, 이 무렵에 그의 하숙 부근 荒川 독에서 만난 金松보다 세 살쯤 위이며 立敎大學에 다니는 柳致眞<sup>16)</sup>으로부터, 이미 조직하여 창작극을 준비중인 연극 연구회에서 같이 일해 보자는 제안을 받는다. 學生小劇場은 외국 단막극을 번역하는데 주력하고 있는 단체여서 연극 연구회도 필요한 형편이었다. 學生小劇場 회원은 같은 新劇이라도 방향이 다르다는 이유로 통합이 되지 못했다. 학생 소극장 회원은 번역극으로 출발하는데, 연극 연구회는 창작극으로 출발했기 때문이다.

이 時期에 金松의 生涯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결혼이 있었다. 金松은 자기 자신의 결혼연도에 대해서 어느 글에서도 분명히 밝히고 있지 않지만, 자기의 결혼은 강제결혼이었으며, 이것은 아버지의 과욕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아버지는 과욕 때문에 애정도 물질도 한꺼번에 잃었다. 분별도 판단력도 서지 못한 나에게 사모관대로 말을 타게 한 것도, 생활력이 없는 나에게 아이를 가지게 한 것도, 아버지의 과욕이었다.<sup>17)</sup>

이 「강제결혼」이 그의 小說에 막대한 영향을 준다. 金松의 初期小說中

16) ①1905년 경남통영 (현재 충무시)태평동 500번지에서 출생

②그가 회곡과 연극에 입지를 세운 것은 1925년 부친의 뜻에 따라 경응(慶應)대학 예과에 지망했다가 낙방하고 이듬해(1926년) 입교(立敎)대학 예과에 합격한 후였다.

③동경학생의 신연극 단체인 '근대극장(近代劇場)'에 2, 3년간 따라 다니며 「검찰관」 「공기만두」 등의 작품에 출연을 했다. 하지만 보다 수준이 향상된 극단을 원했던 그는 아나키스트들의 극단인 '해방극장(解放劇場)'으로 자리를 옮기기도 했다. (신용성 「한국현대문학사탐방」 현암신서 74, 玄岩社, 1984. p. 276~277에서 발췌)

17) 新東亞(80. 1), p. 312.

「南國의 女人」「男寺黨」「憧憬」등에서 강제결혼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우선 筆者는 결혼연도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長男 金星圭와 結婚 당사자인 劉今福의 증언을 들었다.

1928년 金松의 나이 20세 때 방학을 틈타 고향에 돌아와 아버지 金昌萬의 권유로 결혼했다. 新婦는 江陵劉氏(劉今福)인데 金松보다 1살 위인 21세였다.<sup>18)</sup>

金松과 劉今福의 결혼 사연은 다음과 같다.

당시 함흥에서는 劉氏 집안과 朴氏 집안에서 土地를 제일 많이 갖고 있었다. 金松의 부친은 한의사로서 사업에도 능통하였다. 하루는 함흥에 수력발전소가 생긴다는 소문을 듣고 그 주위의 토지를 사들였다. 나중에 알고 보니 수력발전소의 터가 그 곳이 아니고 다른 곳이었다. 할 수 없이 그 토지를 팔아서 부동산 소개 사무소를 차렸다. 劉氏의 父도 부동산 소개 사무소를 이미 운영하였기 때문에 잘 아는 사이가 되었다. 그리고 劉氏의 父는 甲富 행세를 하였기에 金昌萬은 그를 이용하여 事業을 더 잘해 보자는 뜻에서 本人(아들)의 의사도 듣지 않고 아들을 劉氏의 딸과 결혼 시키기로 결심하였다. 劉氏 父의 입장에서 보면 딸의 나이가 스물 하나라 過年한 데다가 日本에서 留學하고 있는 학생을 사위로 맞아 들이면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었기에 결혼을 쉽게 그리고 빨리 추진하는 데는 별 어려움이 없었다.<sup>19)</sup> 그 이듬해 1929년 6월 10일 長女 金己蘭이 탄생하였다.

### 3. 제3기(1930~1939) 放浪과 희곡시대

1930年 初에 金松은 日本大學 예술과를 마치고 귀국했다. 그 해 5월에 金松은 新興劇場이란 극단을 설립하여 代表 자리에 앉게 된다.

1930년 5월이었다. 金承一과 나는 아현동 이천석(李千石)의 집에 신흥 극장이란 간판을 걸었다. 새로이 일어나는 극단이란 뜻이다. 李千石은 마포 일대를 주름잡는 오야봉(두목)으로 흥행사였다. 그는 신흥 극장이란 이름에 끌려서 투자한다는 것이다.……中略(원자주)……모두 모여서 레파토리를 정하고 매본을 프린트했다.

18) 趙靈巖의 前掲書 p. 95에 의하면 <열여덟살 되던 해에 어떤 결혼식장으로 이끌려 들어가니, 그것이 첫 결혼식이었고, 아들과 딸을 셋을 얻었다.>라고 써어져 있다. 그런데 金松의 결혼 나이가 열여덟살이 아니고 스무살이다.

19) 金松의 長男인 金星圭의 證言

대본이 완성되자 배역을 정하고 연습을 시작하였다.

신 고송의 「슈푸레콜」 일장과 유진오의 「朴점지」와 나의 「地獄」을 상연하기로 결정했다. ……中略(필자주)……신흥극장의 제1회 공연은 3일간으로 정했다.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으로 시도하는 진보적인 신극이므로 연출, 장치, 연기에 있어서 완벽을 기하도록 노력했고……中略(필자주)……「슈푸레콜」은 신고송이 기획하고 또 연출했다. 유진오 作 「朴점지」는 金承一이 연출하고, 나의 「地獄」은 내가 직접 연출했으며, 또 신흥극장 대표자도 내가 되었다.

우리 단원들은 기성 극단의 배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20대의 청년들이었다. 따라서 물불을 가리지 않고 신흥극장을 위해서 희생 정신을 발휘했다.<sup>20)</sup>

위의 인용문에서 우리는 ①신흥극장의 설립 시기, ②신흥극장의 초기 상연작품, ③신흥극장은 우리 나라에서 처음 시도되는 진보적인 신극이라고 하는 그것의 성격, ④초기 연출자, ⑤金松이 신흥극장의 대표자라고 하는 것, ⑥단원들의 연령층 등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이 신흥극장은 金松의 「地獄」을 공연하다가 日帝에 의해 공연 중지를 당함과 아울러 해산되는 비운을 맞게 된다.

첫 날 공연은 대성황이었다. 2층은 지식인들로 좌석이 메워졌고 아랫층은 시민 학생들로 입추의 여지가 없었다. 그 중에는 安漢과 崔承喜도 있었고, 林和, 朴英熙, 申石岬 등도 참관했다. 安漢과 申石岬는 신흥극장의 전신인 학생소극장의 동인이었다. ……中略(필자주)……임석한 경관이 지켜 보는 가운데 첫날 공연은 7시 개막, 10시 폐막으로 무사히 끝났다. 그러나, 다음 날은 임석 경관들이 비상을 걸고 있었다. 웬일인지 정사복 경찰들이 출입구와 객석의 구석구석에서 지켜 보고 있었다.

그러나 우리들은 예정대로 「슈푸레콜」 「朴점지」 「地獄」의 순서로 연극을 진행했다. 그런데 뜻밖에도 「地獄」을 개막하고 약 10분쯤 경과했을 때, 경찰이 호루라기를 불면서 무대로 뛰어 올랐다.

「중지! 막을 내려라!」

「왜 중지시키오? 막을 내릴 수 없소!」

내가 말했다.

그러자 경찰들이 일방적으로 막을 내리고, 객석의 손님들을 「나가라, 나가」하고 개처럼 몰아내는 것이었다.<sup>21)</sup>

20) 新東亞(80. 1), p. 307.

21) 新東亞(80. 1) p. 308.

여기에서 우리는 ①신흥극장이 하루 아침에 해산된 동기와, ②金松의 「地獄」이 말썽이 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면 왜 日帝가 일방적으로 공연을 중지한 것인가? 그것은 경찰에 제출한 줄거리 내용과 실제로 상연한 무대 연극의 내용이 다르기 때문이었다.<sup>22)</sup>

「왜 연극은 중지시키는 거요?」

임석관에게 따졌다.

「당신네들이 제출한 이 줄거리와 무대의 연극의 내용이 다르지 않소. 이 줄거리에는 염라대왕이 심판하는 지옥의 꿈 장면으로 써 있는데, 실제의 무대 내용은 우리 경찰의 유치장과 형무소를 좋지 않게 풍자한 것이오」

임석 관관이 그같이 말했을 때 옆에 있던 고등계 형사가 경고했다.

「극의 내용이 불온해요. 당신들은 사상이 안좋아, 오늘로서 신흥극장은 해산이요, 연극을 더 계속한다면 대표자를 구속할 것이요.<sup>23)</sup>」

이와 같이 日帝의 억압에 눌려 新興 劇場은 해산되었으나 金松은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에 元山에서 金兌鎭, 朱仁圭 등 영화인을 만나 그들과 손잡고 고리끼의 「첼캣슈」를 상연함으로써 新興 劇場은 元山에서 再開된 것이다. 이것은 日帝의 횡포에 대한 일종의 저항이었다.

그 후 서울에서 2년간 방랑생활을 하다가 1932년 고향에 돌아왔다. 金松은 연이어 長男 金星圭(1932. 2. 6생)를 가슴에 안게 된다. 그렇지만 金松과 劉今福과는 情分이 좋지 않았다. 심지어 부인 劉氏가 長男 金星圭를 낳은 것을 보고 「너는 부모님의 며느리지, 내 아내는 될 수 없어, 내 감정을 건드리지 말아, 무슨 놈의 아이만 자꾸 생산하는 거야」<sup>24)</sup>하고 불만을 털어 놓곤 했다. 金松은 그만큼 家庭에 情을 붙이지 못했다.

한편 金松은 자금난과 공연난 때문에 연극 운동이 어렵게 되자, 韓雪野를 찾아 갔다. 그곳에서 韓雪野로부터 처음으로 小説을 써 보라고 권유 받는다.

22) 「地獄」은 1930년, 金松이 日本 유학을 마치고 귀국한 후 첫 발표한 作品이다. 일본에서 유학시절 연극 운동 관련으로 형사대에 체포당하여 25일간 유치장에서 고문당한 체험과 상상력을 곁들여서 1막2장으로 만든 것이다. 「地獄」은 日本帝國主義가 人間의 「地獄」임을 나타내고 있으며, 日帝에 대한 저항의식을 반영한 것이다. 이 작품으로 金松은 두 번이나 日警의 검열에 걸리고 심지어 구속까지 당한다.

23) 新東亞(80. 1), p. 308.

24) 新東亞(80. 1), p. 311.

金松은 金兌鎭의 소개로 광주까지 가서 「地獄」과 「죽지마라 순이야」(洪曉民 원작 金兌鎭 각색) 등을 가지고 순회공연을 계획했었는데, 흥행사 최모와 여배우 김정숙이가 실종되는 바람에 공연도 하지 못하고 말았다. 다행히 木浦에서는 3일간의 공연이 무사히 마치고 제주도로 갈 기선을 부두에서 기다리는데 金松과 李圭高은 경찰서 유치장에 갇히는 신세가 된다. 金松은 「地獄」의 작가이고, 李圭高은 「地獄」의 主演者로서 갇힌 것이다.

29일간의 유치장 생활을 마친 그들은 석방과 동시에 목포에서 추방령이 내려서 경찰의 감시하에 서울행 기차를 탄다. 그들은 곧장 서울에 가지 않고 대전에서 하차, 대구로, 대구에서 다시 서울로, 서울에서 평양으로 2년간 공연하면서 전전하다가 1934년에 고향으로 다시 돌아온다.

1934년은 金松에게 있어서 두 가지 의미가 있다. 하나는 부인이 1934. 7. 6. 次男 金眞圭를 낳은 것이고, 또 하나는 放浪生活을 끝맺음하는 것이다.

金松의 父인 金昌萬은 사업 실패로 인하여 빚에 쫓기자, 그의 三男 玄松을 데리고 通川에서 정배살이를 하게 되며, 金松의 母 密陽 朴氏(朴宗玉 1889년 10월 23일생)는 생선장수를 하게 되고, 부인 劉氏는 그동안 낳은 세 아이를 데리고 가정 살림만 도맡아 하게 된다. 이렇게 되자, 金松은 어머니 朴氏의 권유를 받아들여 어머니의 금비녀, 금가락지, 생선냄새가 나는 얼마간의 돈을 가지고 서적상을 시작하게 되었는데, 서점 이름이 新聲閣이다. 초기에는 워낙 자본이 모자라 서점의 운영이 어렵게 되자, 부인 劉今福에게 시집 올 때 가지고 온 금붙이를 좀 꾸어서 장사밀친하려고 하다가 단번에 거절당한다. 이것이 2년 후(1936년) 부인과 생이별하는데 결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이 된다. 다행히 3년이 지나면서 서적상은 소매상에서 도매상으로 탈바꿈하고 서울은 물론 심지어 일본 오오사까까지 가서 상품을 직수입하고 특약점을 개설했다. 당시에 어려웠던 은행의 신용대부도 가능하게 되는 등 金松의 사업 기질이 돋보이는 시대를 맞이하고 있었다.

1935년은 金松의 文壇登壇의 해이다. 그는 희곡 「국경의 주막」(新人文學 1935. 8)을 발표함으로써 文壇에 登壇하게 된다. 그 후, 「딸」(新人文學 1935. 10) 「怨情」(新人文學 1935. 12) 등 2편의 희곡을 연이어 그 해發表, 희곡작가로서의 자리를 굳히게 된다. 1936년, 「桃色の 집」(新人文學 1936. 8), 「노래하는 女子」(新人文學 1936. 11)를, 1939년 「鳳凰琴」(野談

1939. 10~11)을 발표한 바 있다.

1936년은 金松에게서 앞으로 人生 여정에 또 다른 영향을 주게 되는 劉氏와의 생이별을 하는 해가 된다. 金松의 나이 28살, 劉今福의 나이 29살, 결혼한지 8년째 되는 해였다.

외동딸 己蘭은 국민학생으로서 7살, 長男 星圭는 장난감에만 매달리는 어린이로서 4살, 次男 眞圭는 흥장난을 즐기고 있는 어린이로서 2살때였다. 金松은 아내 劉今福이가 예술가를 이해하지 못하고 금붙이만 틀어쥐고 변통성이 없는 아내라고 생각하다 보니, 자식은 사랑하면서도 아내는 미워하는 감정이 나날이 싹이 트고 자라서 감정의 충돌까지 야기, 劉今福은 어린 3남매를 金松에게 맡기고 친정으로 가버리는 사태까지 이르게 된다. 그 후 아이들(3남매)은 金松의 母(당시 46세)가 돌보았다.

金松은 첫 부인과 생이별한 후에도 그의 연극운동에 대한 정열은 대단하였다. 그는 文人 극단인 「文藝座」조직에 참여하고 연극운동을 하였다. 「文藝座」의 회원은 韓雪野, 李石薰, 李北鳴, 尹鼓鍾, 韓曉, 白石, 趙成女 등 소설가, 평론가, 시인, 음악가 등이었다. 그런데 「文藝座」의 조직시기가 언제이나 하는 문제이다. 김용성은 1937년이라고 기술하였는데<sup>25)</sup> 金松 자신은 희곡집 「湖畔의 悲歌」가 出版되고 출판기념회가 열렸을 때 韓雪野가 제안했다고 주장한다.<sup>26)</sup> 元老 小說家 朴淵禧의 證言에 의하면 「文藝座」의 조직시기는 1937년이다.

1936년에서 1939년 사이에는 金松에게 몇 가지 기록될 만한 일이 생겨나기 시작했다.

첫째, 앞에서 밝힌 文人劇團 조직에 참여한 것

둘째, 희곡작가에서 小說 작가로 전향하는 계기를 이룬다는 것이다. 이것은 주위에서 권유한 것을 받아들임으로써 이루어지게 되는데 주로 李石薰, 韓雪野의 영향을 많이 받은 셈이다.

셋째, 둘째 부인으로서 성악가(소프라노)인 趙成女를 맞이했다는 것이다.

趙氏는 당시(1939년초) 21살의 처녀로서 압록강 기슭에 있는 의주 태

25) 김용성, 「한국현대문학사탐방」, 현암실서 74, 玄岩社, 1984, p. 242.

26) 新東亞(80. 2), p. 195 참고. 그런데 「湖畔의 悲歌」 出版年度가 분명하지 않다. 金松의 수필 「以北斷想」(白民, 49. 3)에 의하면 「湖畔의 悲歌」를 25세때 출판했다고 한다. 그러면 1933~34년이 된다. 韓國現代文學史年表(권영민 편, 서울大學校出版部, 1987)에는 출판연도가 1939년, 正統韓國文學大系(語文閣, 1988) 金松年譜에는 1941년으로 되어 있다.

생이며(1918년 생) 부친이 죽고 가세가 기울어지자 오빠, 동생, 어머니 등과 함께 단촌으로 이주했다. 기독교 계통의 중학교를 졸업하고, 합흥에서 永生高普, 서울에서 보육계통의 전문학교를 졸업, 음악회를 개최한 바 있는 성악가이었다. 학교를 졸업하고 낙향 이후 합흥에서 유치원을 경영, 「文藝座」의 홍일점이었으며, 독실한 기독교 신자였다. 金松과는 「文藝座」의 인연으로 알게 된 것이다.

金松은 趙氏와 결혼하면서 그녀의 손가락에 사랑의 징표로 다이아 백금 반지와 오판 금반지를 끼워 주었으며, 그녀가 즐기는 세계 명곡 음반 집과 빅타 전축도 사주고, 오동나무 장롱도 들여 놓는 등 세심한 배려를 아끼지 않았다.

#### 4. 제4기(1940~1949) 小說과 「白民」時代

1939년 3월 5일, 金松은 아이 셋과 趙氏 부인과 합흥을 출발, 그 이튿날 서울 종로구 누상동 9번지로 이사했다.<sup>27)</sup> 누상동 9번지 金松집은 대지 일백 수십 평에다가 기와로 신축한 건물인데, 과거 부당들이 굿하고 살풀이하던 흥가였다. 이곳에서 金松은 서울 생활을 어떻게 새출발할 것인가에 대하여 곰곰히 생각하다가 盧聖錫을 찾아 의논하며, 그로부터 蔡萬植, 梁柱東, 崔南善 등을 소개 받았으며, 李泰俊, 李庸岳, 李根榮, 李箕永, 李周洪, 宋影, 朴世永, 嚴興燮 등과 交遊하며 1940년대 전반부를 보냈다. 특히 1941년은 金松의 小說登壇의 해이다. 1941년 「石刀의 由來」(野談41. 12)를 발표했다기 때문이다. 1942년 「南國의 女人」(野談 42. 1), 「어데로 가나」(野談 42. 2) 「雪江圖」(野談 42. 12) 등을 연이어 발표함으로써 희곡작가에서 소설작가로 변신한다.

그 때(1940년대 전반기) 시국이 자꾸만 암담해지고 긴박감이 감돌자, 金松과 交遊하던 文人들이 하나 둘씩 자취를 감추고 시골로 낙향하였다. 반면, 서울에 남아있는 문인들 중에서는 일본어 소설을 쓰고 잡지에 발표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그러나 대체로 독자가 없는 소설이었다. 일본 신사를 참배하라는 성화에 못이겨 참배하다가도 시달림에 못견디어, 만주로 피해 간 문인들도 상당수 있었다. 한편 당시 「文章」<sup>28)</sup> 「人文評論」

27) 이 집에서 日帝의 저항 시인으로 평가 받고 있는 尹東柱가 하숙했다. 김용성 前揭 書(p. 470)에 의하면 尹東柱는 1940년(23세)연전 2년 후배인 정병욱과 친교를 맺음, 5월 기숙사를 나와 종로구 누상동 9에서 정병욱과 함께, 하숙 1941년(24세) 봄에 정병욱과 함께 누상동에서 서대문구 북아현동으로 하숙을 옮겼다.

28) 1939. 2. 1 창간, 1941. 4. 1 종간(통권 3권 4호)

29) 등 권위있는 종합 잡지를 비롯하여, 「春秋」<sup>30)</sup> 「朝光」<sup>31)</sup> 등이 폐간 또는 휴간되고 신문들도 정간이 되자, 文人들은 뿔뿔이 흩어져야만 했던 글자 그대로 암울한 시대에, 金松은 어쩔 수 없이 또 방황해야만 했다.

金松은 「野談」社를 찾아간다. 일찌기 「鳳凰琴」<sup>32)</sup> (野談 39. 10~11) 이란 희곡을 上·下로 分載한 일이 있어 원고료라도 좀 받을까 해서다.

그곳에서 林耕一 社長으로부터 「野談」社가 수지 타산이 잘 맞다면서 인수 권유를 받고 고향 선배 韓雪野에게 편지를 보낸다. 내용은 「野談」社를 인수할 뜻이 있다는 것과 인수금액을 적어 놓고, 고향에 있는 부동산을 팔아도 좋다는 것이었다. 4~5일이 지난 후 은행의 송금 수표가 들어 있는 편지를 韓雪野로부터 받고 「野談」社를 인수했다.

당시 「野談」은 金東仁이 1935년 12月號를 창간호로 발행한 月刊 잡지이다.<sup>33)</sup> 1941年度 후반기에 林耕一이 인수하여 3년째 운영하고 있었다.

34) 金松이 인수한 시기는 「野談」 폐간(1945. 3. 5, 통권 119호로 종간) 몇 달을 앞두고 었다. 그러니까 1944년 6월쯤으로 추측된다.<sup>35)</sup>

29) 1939. 10. 1 창간, 1941. 4. 1 종간(통권 16호)

30) 1941. 2. 1 창간, 1944. 10. 1 종간(통권 39호)

31) 1935. 11. 1 창간, 1944 12. 1 종간(통권 110호)

32) 金允植 編, 「韓國現代文學年表」(文學思想社, 1988) p. 218. 에 의하면 이것을 金松의 小說 дебют작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은 잘못이다. 이 작품은 金松의 6번째 희곡작품이다.

33) 「野談」에 參與한 作家와 작품은 다음과 같다.(小說)

作家名	作 品 名	發表誌	發表日	作家名	作品名	發表誌	發表日
金東仁	狂畫師	野談 1	35. 12	金東仁	忠 魂	野談 75	42. 3
"	女人譚	" 38	39. 2	金 松	雪江圖	" 84	42. 12
林耕一	南漢山城	" 71	41. 11	"	愛 情	" 87~	43. 3
金 松	石刀의 由來	" 72	41. 12	朴淵禱	조랑말	" 103	44. 7
"	南國의 女人	" 73	42. 1	"	秋夕날	" 108	44. 12
"	어데로 가나(趣味物)	" 74	42. 2				

34) 여기에서 林耕一이 「野談」을 인수한 시기를 1941년 후반기로 보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林耕一이 「野談」 71호에 「南漢山城」이란 小說을 발표했는데, 1941년 11월이었다. 필자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林耕一이 남긴 작품은 이것 하나 뿐이다. 이 小說 작품을 실은 시기를 기준으로 할 때 1941년도 후반기가 된다.

둘째, 林耕一이 金松에게 「野談」社 인수 권유를 할 때 3년째 운영하고 있다는 이야기에서, 金松이 인수시기와 비교해 볼 때 1941년도에 해당된다.

셋째, 金松이 몇 달을 발행하지 못하고 자진폐간(폐간시기, 1945. 3. 5)했다는 회고담에서 인수시기를 1944년 6월쯤으로 본다. 이 연도에서 3년을 빼면 1941년도 후반기가 林耕一이 인수한 시기가 된다.

金松이 「野談」社를 급하게 인수한 이유가 중요하다. 당시에 잡지, 신문 등이 日帝의 탄압에 못이겨 日本語로 발행한다든지 아니면 폐간 내지 휴간을 해야 할 때 「野談」社를 인수했기 때문이다. 그는 조선어를 지킬 수 있고, 국사, 야담, 전설을 담을 수 있다는 林耕一의 말에 매력을 느끼고 많은 돈을 주고 인수한 것이다. 여기에서 「조선어를 지킨다.」는 金松의 투철한 민족의식을 읽을 수 있고 이것이 해방 직후(1945. 12) 창간된 「白民」으로 그 精神이 이어지는 것이다.

金松이 오직 조선어를 끝까지 지켜 보겠다고 인수한 「野談」도 日帝로부터 전지체제로 바꾸고 日本語로 편집하라는 압력을 받고 자진 폐간했다. 林耕一한테는 사기당한 것을 알고 가슴을 치지만 별도리는 없었다.

1945년 해방과 함께 金松은 우리 文壇史에 길이 남을 「白民」誌 창간을 하게 된다.

1945년의 8·15 민족 해방은 일제(日帝)에 의해 말살되었던 우리 민족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분야와 더불어 민족문학의 회생을 가져 왔다. 그러나 뜻하지 않은 남북분단(南北分斷)의 정치 형세에 따라 민족 문학도 분열의 불행을 면할 수가 없었다. 남북의 상이(相異)한 사회 체제(體制)가 지닌 이데오르기의 차이와 불협감에 기인하는 감정적 격동의 풍조 속에서 민족 문학의 분열 또한 대립과 격돌의 시기를 가져 왔다. 그 결과로 문학 단체의 양립(兩立)과 문학 이론의 대결이 불가피하게 되었다.<sup>36)</sup>

이러한 시대적 배경하에 金松은 1945년 11월 10일 「白民」창간호를 12월 1日字로 2만부 발행했다. 인쇄는 종로 2가 大同印刷所에서 했다. 「白民」은 「白衣民族」의 준말로써 「배달」을 상징하나. 金松은 左右 총돌이 극심하고, 또 지하조직이 인쇄소 출판계까지 휩쓴 혼란의 시기에 이 「白民」을 민족 진영의 유일한 잡지로 키우는데 全力을 기울였으니 우리 文壇史에 길이 기억될 만하다.<sup>37)</sup> 金松은 思想界(60년 12월호)에 <四〇年間

35) 金松의 「野談」인수 시기를 1944년 6월쯤으로 보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폐간 몇 달 앞두고 인수했다는 사실에서 1944년도이다.

둘째, 「野談」을 인수할 때 金松과 같이 행동한 소설가 朴淵禧가 小説「조랑말」을 「野談」103호에 발표했다. 1944년 7월이었다. 그래서 「野談」인수시기는 1944년 6월 정도로 보고 있는 것이다.

36) 「韓國文學大事典」, 廣書出版社, 1980, p. 1048

37) 白鐵은 「韓國新文學發達史」p. 336-348에서 <해방 뒤 수년간의 사회풍토를 한 마

의 文藝誌》題下에서 「白民」에 대하여 발표했고, 現代文學 128호(65. 8)에 〈光復後의 文藝誌·交藝團體〉라는 題下에서 「배달을 상정한 白民과 解放文壇外」를, 대한 일보에서는 〈文壇 交遊記〉라는 題下에서 「나와 白民 時代」를 10회(70. 5. 23~6. 11) 연재 發表한 바 있다.

아래의 인용문을 보자.

우리 모두가 日帝의 굴레에서 벗어났던 그 날, 8월 15일을 맞이했다. ……中略(필자주)……나는 무엇을 할까 하고 몇 일을 두고 생각한 결과 민족을 위해서 物心을 송두리째 바치리라! 하고 결심하기에 이르렀다. 그리하여 당시의 軍政공보부를 찾아가서 月刊 잡지 등록을 했는데, 잡지 등록을 희망하는 사람은 무려 수백 명이어서 정류소에서 열을 서서 승차하듯이 등록을 하게 되었다. 수백명 수백종의 月刊은 대체로 공산 계열임에 놀라고 당황했다. 그러나 민족 계열의 月刊은 3~4종에 지나지 않았으니 「白民」은 수백 분의 일에 불과한 민족적 月刊誌였다.

나는 「白民」이란 제호를 붙이기까지 나대로苦心을 했었다. 「白民」은 너무나 노골적인 표제라고 평하는 친구들도 있었지만 나는 混亂期에 처하여 노골적으로 白衣民族을 표현하고 싶어 「白民」두 글자를 表題로 내세웠던 것이다. ……中略(필자주)……흰옷 입은 백성은 해방 이후에도 말살될 수 없다고 생각한 것이다. 먹칠하고 붉은 칠을 해도 白衣는 영원히 喪失되지 못할 우리의 의복이고 우리의 자랑이라고 믿은 것이다.”<sup>38)</sup>

조금 긴 인용문이지만 金松의 「白民」創刊精神이 담겨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되어 길게 인용해 본 것이다. 「白民」創刊 당시의 文藝誌 發刊狀況과 「白民」의 創刊精神을 쉽게 읽을 수 있다.

도로 특질을 말하면 政治時代라고 표현할 수 있다.>라고 전제한 뒤 <이 정치시대라는 말은 우선 그런 풍토 속에서 文化藝術이 신흥 성장하는데 적합하지 않는다는 뜻이 되고, 문학 운동의 성과도 기대하기 어렵다는 뜻도 된다.

문학의 특권을 정치쪽에 양도하고 文學은 배경을 당한 시기였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하면서 이러한 시대에 오직 <金松이 주간한 「白民」같은 잡지에는 주로 민족 진영의 작가들이 많이 필자가 되었던 사실도 곁에서 기억해 둘 사실이다.>라고 했는데 이는 학계에서도 金松의 「白民」을 옳게 평가하고 있음을 뜻하는 것이다. 또, 韓國文學大事典(廣書出版社), p. 307에 의하면 白民은 <문예지, 1945년 12월 창간 김송(金松) 주간, 처음은 종합지였으나 4, 5호 이후부터 순문예지로 전환, 1948년까지 20호 내외까지 지속되었다.>라고 記述하면서 <해방 이후 혼란기에 민족문학(民族文學)을 옹호한 공적이 크다>라고 「白民」의 공적을 인정하고 있다.

38) 「대한일보」 1970. 5. 27

그런데 金松이 「白民」을 발행하고부터 死亡時까지 줄곧 같이 행동한 이가 소설가 朴淵禧이다. 朴淵禧는 金松과는 10년 아래이며(1918年生) 同生인 金玄松과 친구로서 역시 고향은 함경남도 함흥이다. 1946년 4월, 월남하여 서울에서 우연히 만남으로써 金松과 「白民」을 함께 하였고, 小說家의 길도 함께 걷게 된 것이다.

朴淵禧는 白民 15호(1948. 7)에 「枯木」을 발표함으로써 文壇에 데뷔하게 된다.<sup>39)</sup> 1959年度에는 「故郷」이라는 作品으로 제2회 소설 부문에서 自由文學者協會賞을 受賞하기도 했다.

金松의 「白民」發行에 헌신적으로 돕고 편집을 담당한 朴淵禧는 〈金松의 추도 특집〉을 통하여 「白民」시대를 회상하면서 金松을 이렇게 추모하였다.

제가 1946년도에 월남하였을 때 일을 생각해 보십시오. 형님은 이미 문예지 「白民」을 창간하고 있었읍니다. 대한민국 서울이면서도 마치 모스크바의 전초기지처럼 「백민」이외에는 문학지 내용이 모두 불그레하지 않았읍니까? 〈문총〉이 조직되고, 얼마 후 〈청년문학가협회〉가 조직되었을 무렵에는 「백민」이 민족 진영 문인들의 유일한 작품 무대가 아니었읍니까?

한 때는 「백민」편집실이 문전성시가 아니었읍니까? 「백민」을 통하여 문단에 등장하였던 사람들이 이제는 다 중진이 되었다는 사실을 형님은 알고 돌아가셨읍니다. 당시 우리 정부가 고군 분투하는 「백민」에다 잡지 용지 한 연(連) 준 일이 있었읍니까. 형님의 사재를 털어 발행하지 않았읍니까. 붉은 잡지들의 독자가 승해서 그랬던지 경영이 날로 기울어져 드디어 1948년 중간에 중단하는 비운을 맞았읍니다.……中略(필자주)……형님은 슬 좌석에서도 당신의 사재를 털어 「백민」을 발행했었다는 말씀을 한 번도 하신 적이 없었읍니다.……中略(필자주)……저는 단정합니다. 8·15 직후 사재를 털어 문학을 위하고, 내지는 대한민국을 위하여 문학지를 발간한 사람은 오직 형님뿐이었읍니다.<sup>40)</sup>

윗글에서 그(朴淵禧)는 누구하나 지원하는 독지가가 없는 상황과 날마다 정치싸움으로 인한 정부의 외면 속에서 개인이 용지난 자금난을 무릅쓰고 한국 문학을 위하여 「白民」을 발간했다는 사실은 분명히 위대한 업적이었음을 우리들에게 말해 주고 있는 것이다.

39) 朴淵禧는 「쌀」(白民5, 46. 10) 「賭博」(白民6, 46. 12), 「三人線」(白民13, 48. 3) 등 세 작품을 발표하였는데 이는 모두 콩트이다. 따라서 小說로서의 데뷔작은 「枯木」이 된다.

40) 「現代文學」 402호, (1988. 6), p. 79-80

따라서 <金松>하면 「白民」이 생각될 정도로 그는 「白民」에다가 私財를 투입해 가면서 정열을 바쳤으나, 경영난으로 중단하지 않을 수 없었다. 1950년 3月號(통권 21호)로 4년 6개월의 「白民」시대의 막은 내려졌다. 41) 종간호가 나간 지 얼마되지 않아 怡山 金玟燮의 주선으로 白民 改題 「文學」이란 이름으로 22호(5월호), 23호(6월호)가 속간되었으나 6·25사변으로 인하여 더 이상 짝을 띄울 수가 없었다.

한편 이 시기에 金松은 그의 말년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는 여류소설가 尹金淑<sup>42)</sup>과의 교제가 이루어진다. 1949년 말 金松의 나이 37세가 되었을 때 박영준의 소개로 그의 단골인 소공동 「할빙」다방에서 당시 다방을 경영하고 있던 尹金淑을 소개받은 것이다.

金松은 한 편으로는 새로운 여인을 만나 사귀게 되지만 또 한 편으로는 둘째 부인 趙成女와 생이별하는 계기가 되고 만다.

趙成女와 헤어진 金松은 그 후 6·25를 맞이하여 더욱 尹金淑과 가깝게 지내지만, 趙成女는 본 자식은 하나도 낳지 않고 金松의 어린 3남매를 친자식처럼 맡아 뒷바라지를 계속했다.

1946년에는 「朝鮮青年文學家協會」 結成에 참여한다. 회폭부에 그의 이름이 보이나<sup>43)</sup> 실제로 활동을 많이 한 것 같지는 않다.

41) 「白民」의 종간호에 대한 發行時期 및 號數 등에 金松 자신도 엇갈린 주장을 하고 있다.

첫째, 「白民」은 33인집으로써 해방 이후 과도기의 책무를 다하고 막을 내렸다. 「文學」계호로서 문단정리기로 진입했다. 그러나 「文學」도 3호 발행중 6·25사변이 터져 전쟁의 모진 상처로 재기하지 못했다. (新東亞80. 4. p. 263)

여기서 「白民」 33人集 뒤에 「白民」21호(詩와 評論 特輯)가 발간된 후 「文學」으로 題號가 바뀌었다.

둘째, 白民23호를 통해 가장 발행부수가 많고 날개가 돋친듯이 팔린 것은 白民 33人集이었다. (대한일보, 70. 6. 10)여기서 「白民」23호는 「白民」20호로 고쳐야 한다.

셋째, 白民은 22호를 내고 23號를 인쇄소에 넘겼을 때 갑자기 北傀(人民軍)의 침입으로 校正을 보다가 中斷되었다. 그것은 1950년 6月號였다. 그러므로 白民은 해방과 함께 탄생하고 6·25와 함께 休刊(中斷)된 것이다. (대한일보 70. 6. 11)

여기서 「白民」은 「文學」의 잘못이며 「22호」는 「23호」, 「23호」는 「24호」의 잘못이며 「1950년 6월호」는 「1950년 7월호」의 잘못이다.

42) 「韓國文學大事典」p. 430에 의하면 尹金淑은 1918年生으로서 여류소설가, 함북 회령군(會寧郡) 출생, 해방전 만주에서 <만선일보(滿鮮日報)>기자를 지낸 뒤, 해방 후 귀국 서울에서 <주부생활(主婦生活)>주간 등 작품 편집을 하면서 작품활동을 했다. 그의 데뷔작을 「얼굴」(民聲39. 49. 10)이다.

43) 「조선청년문학가 협회」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949년 7월, 金松은 서울신문 文化部長에 취임하게 된다. 당시 사장은 朴鍾和, 편집국장으로 禹昇圭, 편집부장은 姜永壽였다. 그 해 연말 金聲翰의 「無明路」<sup>44)</sup>를 신춘문에 당선작으로 뽑기도 했다. 그 이듬해 6·25사변으로 인하여 사임한다.

### 5. 제5기(1950~1969) 文學絶頂時代

이 시기는 金松의 文學的인 面에서 黃金期였다. 6·25사변, 5·16 혁명의 격변거에도 잠시도 쉬지 않고 60여편의 소설작품을 발표 하는 등 오직 文學을 위해서 정열을 쏟은 시기이다. 그러나 가정적으로는 不幸하였다. 둘째 부인 趙成女와 헤어지고 세째 부인 尹金淑을 맞이함으로써 스스로 不幸의 늪에 빠지고 마는 것이다.

金松은 1950년 6월 27일, 서울신문사에서 신문 편집을 하고 있었다. 그 때 아우 玄松으로부터 북한 공산주의자가 서울에 들어오니까 빨리 피난을 하자는 권유를 받는다. 그는 재빨리 누상동 집으로 가서 가족을 데리고 피난길을 간다.

1950년 6·28 수도 함락 때 다른 가족들은 부산으로 직행했으나 金松은 대전에서 下車하여 文人들끼리 모여 文總救國隊<sup>45)</sup> 조직에 참여하고

명예회장……朴 鍾 和

회 장……金 東 里

부 회 장……柳致環·金達鎮

(시 부)朴斗鎮·趙芝薰·徐廷柱·朴木月·柳致環·李漢稷·楊雲開·趙仁行

(소 설 부)崔泰應·任西河·桂鎔默·金東里·黃順元·洪九範·俞丁潛

(희 곡 부)金 松·洪龍澤·金光洲·朴容德·李正鎬

(평 론 부)韓黑鷗·趙演鉉·郭鍾元·表文台·李正鎬·李卿·閔英植·林育載

(아동문학부)朴泳鍾·宋南憲·徐廷太·朴斗鎮·金宗吉·李元燮

(고전문학부)趙芝薰·咸洛勳·金達鎮·李海文·張祥鳳·洪永義

(외국문학부)李漢稷·金光洲·呂世基·韓黑鷗·李鍾厚·宋 穉

(서 기 국)林西河·洪九範·朴容德(權寧珉, 韓國近代文學과 時代精神, 文藝出版社 1983, p. 30에서 인용하였음)

44) 1950. 1. 서울신문에 발표되었음

45) 文總救國隊는 6·25동란때 조직된 중군문인단(從軍文人團)이다. 6·25동란이 발발하자 文總(文總)에서는 비상사태하에서의 문인의 사명을 수행하기 위해 27일 긴급히 「비상국민선전대(非常國民宣傳隊)」를 조직, 한강을 건너 남쪽으로 피난간 문인들과 대전에서 합류, 「문총구국대(文總救國隊)」란 중군 문인단을 결성하여 정훈국 소속하에서 활동하였다. 「문총구국대」는 그 후 대구를 중심으로 지방 문인들과 함께 9·28수복(收復)때까지 약 3개월간 각군(各軍)에 중군하였다.

「문총구국대」에서 중군한 단체는 「육군중군작가단(陸軍從軍作家團)」 「해군중군작

총무를 맡았다. 이현구, 김광섭, 서정주, 조지훈, 구상, 조영암, 조흔과, 박목월, 金松 등 20여 명이 참여하였는데 隊長은 金玟燮이다. 이들은 정훈국장(李瑄根)의 후원으로 합숙하면서 신문과 방송 등을 통해 선전활동을 했던 것이다.

金松은 대전에도 10일을 지탱하지 못하고 文總救國隊員과 함께 야음을 타서 좁혀 드는 북괴군의 포위망을 뚫고 대구와 부산 등으로 탈출하지 않으면 안되게 되었다. 부산까지 밀려간 金松은 합숙소를 정하고 남하한 文人 등과 함께 在釜文人의 연합체를 구성했다.

1951년 1·4후퇴 때, 다시 金松은 대구까지 피난한다. 대구에서 金松은 崔獨鵠 具常, 朴榮濬, 尹石重, 鄭飛石, 金八峯 등을 만나 육군중군작가단<sup>46)</sup>을 조직했다. 단장은 崔獨鵠, 총무는 朴榮濬이 맡았다. 다시 부산에 온 金松은 「新潮社」주간으로 入社한다. 사장에 盧勳慶, 전무에 金達河, 주간에 金松, 편집국장에 朴淵禧, 金奎東이 孔仲人의 소개로 기자가 되었다. 朴淵禧의 편집으로 3호까지 발행하다가 盧勳慶 社長의 개인사정으로 중단하고 말았다. 그런데 全光鏞은 <五一年三月 避難首都 釜山에서 金松 主幹으로 「新潮」가 창간되어, 十月까지 두 달에 한 번씩 三號를 내고 廢刊되었다. 이 잡지는 당시의 젊은 모더니스트 詩人들에게 作品發表의 據點이 되기도 하였다.><sup>47)</sup>라는 긍정적 평가를 내리고 있다. 한편, 大邱와 부산을 왕래하면서 대구 「매일신문」에 「영원히 사는 것」을 연재하

가단(海軍從軍作家團) 「공군중군문인단(空軍從軍文人團)」 등이었다. 「문총구국대」는 9·28수복과 함께 일단 자진 해체하였으나, 국토통일의 실현을 돕기 위해 다시 정훈국과 연락하여 중군을 지원, 1954년 환도(還都)때까지 각군(各軍)의 중군단은 계속 활약하였다. (「한국문학대사전」 廣曹出版社, 1980, p. 251)

文總救國隊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金潤成의 「六二五와 文壇」을 참고할 것(韓國文人協會 編, 解放文學 20年, 正音社, 1966, p. 78-79에 자세히 수록되어 있음)

46) 從軍作家團은 6·25동란 때 각 군에 중군한 문인단의 총칭. 문총구국대는 대전에서 중군문인단을 결성, 육군, 해군, 공군으로 나누어 중군 활약하였다. 중군작가단에는 육군중군작가단, 공군중군작가단, 해군중군작가단이 있었다. 1952. 4. 10 육군중군작가단에서는 大邱에서 「戰線文學」을 創刊하였다. 「戰線文學」 창간호에 參與한 作家는 다음과 같다.

崔象德, 朴琦俊, 林肯載, 閔載禎, 鄭飛石, 趙靈巖, 金松, 金鎮壽, 金東振, 張德祚, 金素雲, 朴木月, 崔仁旭, 金龍煥, 金八峰, 嚴基衡, 崔泰應, 金永壽, 具常, 李相魯, 金宗文, 朴斗鎮, 爾豪恩, 李德珍, 楊明文, 張萬榮, 朴榮濬, 金利錫 등이다. 여기에서 金松은 「文學하는 軍人들」이란 제목의 수필을 발표했다. 더 자세한 내용은 崔獨鵠의 「陸軍從軍作家團」(韓國文人協會 編, 前掲書, p. 89-94) 참고할 것.

47) 韓國文人協會 編, 前掲書, p. 193

고 그것을 출판했다.<sup>48)</sup>

金松은 避難 釜山文壇의 살림집격인 「密茶苑」에 모여 文友들과 소일하며 避難살이의 시름과 서러움과 虛脫을 이겨내고, 달래다가<sup>49)</sup> 還都 직후 동생인 金玄松의 제의를 받고 출판 사업에 뛰어들게 된다. 「青春」社란 간판을 달고 「青春」<sup>50)</sup>이란 잡지를 발행한 것이다. 그는 「青春」창간호(54. 10)에 「서울의 하늘」(장편소설)을 발표했다.<sup>51)</sup>

還都 이후 金松은 집을 누상동에서 서소문으로 옮겨 尹金淑과 생활했다. 해방 전후의 서소문에는 아편장과와 줌도둑이 많기로 이름난 흑색지대였다. 그러나 이 곳이 서울의 중심지이기에 가다 오다 들르는 사람이 많았다. 평론도 쓰고 잡지 편집도 하던 林肯載가 자주 다녀 가고, 李仁石은 그의 첫 시집 「사랑」<sup>52)</sup>을 발간하면서 인연에 대한 의논도 했고, 朴淵禧, 趙欣坡, 柳根周 등이 자주 들러 가곤 했다.

金時哲은 그의 첫 시집 「林檎」<sup>53)</sup>의 序文을 金玟燮에게 받아 달라고 부탁도 해서 金松은 그것을 받아 줌으로써 또 하나의 인연을 맺게 되는 계

48) 「영원히 사는 것」연재 연월일은 확인되지 않고 있으나, 出版은 白映社에서 1950년대에 했다.

49) 李鳳九는 「避難釜山文壇」에서 다음과 같이 密茶苑에 모인 사람과 분위기를 말하고 있다. 邱에 처진 사람을 除하고는 釜山으로 避難은 사람들은 어느 누구고 모두 密茶苑에서 살다시피하고 있었다. ……中略(필자주)……이 密茶苑은 避難 直後 한 동안이었고, 그 후 金剛, 春秋, 綠園, 스타, 靑丘로 갈라지고 옮겨져 갔다.

金剛엔 趙演鉉, 黃順元, 吳永壽, 金東里, 許允碩, 朴容九, 金末峰, 孫素熙, 郭鍾元, 李鍾桓을 비롯한 많은 사람이 드나들었고, 春秋, 綠園, 靑丘에는 金光洲, 林肯載, 朴寅煥, 金奎東, 金松, 金宗文, 朴淵禧, 趙靈巖, 全鳳來를 비롯한 이 周邊 사람들이 모여 들었다.

三一節이니 光復節이니 해서 年中行事格인 行事가 〈文總〉主權로 열리는가 하면, 詩畫展 그리고 出版記念會가 열리어 避難生活 속에서나마 文壇의 따스한 雰圍氣를 어느 만큼 맛볼 수가 있었다. (韓國文人協會 編, 前掲書, p. 107-108)

50) 「青春」창간호(54. 10)에 실린 作品 중 小説은 다음과 같다.

金松의 「서울의 하늘」, 方仁根의 「有閑에담」, 朴仙子의 「그女人的 手記」, 朴榮濤의 「地熱」, 仁旺居士의 「大聖異次頓의 죽음」등. 그런데 이 「青春」은 1914년 10월에 창간된 「青春」과는 구별된다. 1914년에 창간된 「青春」은 〈최남선과 춘원의 '문단2인 시대'를 출현시키며 시조, 한시, 잡가, 신체시, 보통문, 단편소설, 등에 걸쳐 '현상문에쟁선 응모'란 독자투고란을 만들어 문사(文士)계발에 박차를 가했다.〉(金용성 전계서 p. 13 참고)

51) 金松은 「新太陽」誌에 「서울의 하늘」이란 연재소설을 썼다고 했는데 이것은 잘못이다.

52) 1955년 靑春社에서 간행.

53) 1957년 三千里社에서 간행.

기가 되었다.

1953~1958년쯤으로 추측되는데, 이 때 金松은 흥제동 文化村<sup>54</sup> 68호로 다시 이사하게 된다. 대지 54평에 건평이 16평인 문화촌의 집은 서소문의 집에 비하면 넓은 新屋이었다. 단지 울타리가 없고 부대 시설이 없는 단조로운 집이었다. 金松이 이 文化村으로 급하게 옮긴 것은 尹金淑의 事業 실패 등의 원인이었다.

1958년 3월 金松은 「自由文學」<sup>55</sup> 주간을 맡게 된다. 金琬燮이 「自由文學」 發行人이었다. 金琬燮은 「白民」이 재정난으로 허덕일 때 많이 도와 준 인물로서, 金松을 주간으로 적극 추천한 듯하다. 「自由文學」은 文總(문학단체 총연합회)의 산하단체인 자유문학자협회(1955, 창설)의 기관지인 동시에 문총의 대변지로서 1956년 창간, 격월간으로 발행하였다. 金松이 「自由文學」 주간 일을 맡고부터 3년동안 한 번도 缺號가 없이 책을 발간했다. 물론 발행 부수도 늘게 되었고, 수지타산도 괜찮았고, 경영도 무난했다.

특히 金松은 ①自由文學者協會賞<sup>56</sup>을 제정할 것, ②원고료 지급이 정

- 54) 흥제동을 文化村이라고 부르게 된 것은 자유당 총재로 있던 李承晚 대통령이 주택 공사로 하여금 후생주택을 짓게 하고 문화인 30여명을 입주시킨 데서부터 유래되었다. 연극계의 대표 李海浪과 문학계의 대표 金光洲가 국회의부의장 李在鶴을 통해 교섭한 것으로 알고 있다.  
 처음 문화예술인으로 입주한 사람은 신문잡지기자 7~8명, 영화인 15명 가량이었다. 문인으로는 金光洲, 金利錫, 朴和穆, 柳周鉉 등이었다.
- 55) 自由文學은 自由文學者協會 기관지로 창간되었다가 협회가 해산된 후 金琬燮 주간으로 續刊되었다. 기성문인들의 작품계제와, 신인 추천제를 통하여 많은 신인을 배출했다. 그러나 재정난으로 인하여 1963년 8월, 통권 71호로 폐간됐다. (韓國文學大事典, p. 536 참고)
- 56) 「自由文學者協會賞」을 좀더 상세하게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制定)자유문학자협회에 의해 1958년 제정되었으나 1959년 2회를 마지막으로 시상하고 그 후는 본회폐해체로 자연 소멸(消滅)되었다.  
 둘째, (趣旨)한국 문학의 역사적 발전을 도모하고 작가정신(作家精神)을 고무(鼓舞)하며 나아가서 세계문학에 기여(寄與)하는 데 목적이 있다.  
 셋째, (規定)본상 취지에 부합된 작품 중 심사위원회의 심사(審査)에서 선정된 작품에 시상하며, 수상대상은 소설, 시, 아동문학, 평론, 수필, 희곡, 시나리오의 세부문(諸部門)으로, 수상자는 한 명을 원칙으로 하고 동일인에게 2회 시상(施賞)할 수 없다. 심사위원(審査委員)은 본 협회 정부위원장, 사무국장 및 각 분과 위원장으로 하며, 최종심사 결과는 무기명 투표로 이를 선정(選定)한다.  
 넷째, (受賞者) 제1회(1958)金宗文(시), 金南祥(시)  
 제2회(1959)朴淵禧(소설), 金奎東(시), 李仁石(시)  
 (韓國文學大事典 p. 1188에서 뽑은 것임)

확한 것, ③편집의 자유를 보장할 것 등 3개 항을 自由文學者協會에 제시하여 會員 전원의 찬성을 얻어 시행한 것이 큰 功이었다.

1960년 6월호로써 通卷 三十九卷을 낸 「自由文學」은 四·一九를 契機로 「自由文協」의 機關誌를 벗어남에 따라 金松은 主幹에서 물러난다. 그리고 그는 작품쓰는 데에 몰두한다.

金時哲은 그의 사망 후 弔詩를 통하여 「自由文學」을 회고하며 金松을 추모했다.

받는 사랑 그보담  
주는 의미에 익숙하셨던 그 끝머리쯤  
관심과 배려 안에서 불초 이놈도 말석을 메우며  
일찌기 「自由文學」의  
한술밥 3년씩이나 함께 둘러앉혀 먹여주셨으니  
누가 뭐라 하든 당신은 우리 문단의 공로자이시요  
은인이시요, 선배였습니다.<sup>57)</sup>

金松은 「自由文學」과 작별한 뒤에 文化村에서 「城門」「歲月」「暴雨」「開雲峯」등 장·단편을 쓰고 「愛情都市」<sup>58)</sup>를 발간했다.

1961년 5·16혁명이 일어난 후 金松은 경기도 고양군에 사는 동생 金玄松을 찾아 갔다. 새로운 농촌 소설을 쓰고 싶었던 것이다. 그는 농촌의 실정을 두루 파악하고 다시 문화촌으로 돌아와 農民史(장편소설)를 쓰기 시작했다. 發表는 「文學春秋」18호~20호(1966. 1~3)에 하였다.

이 때(1965년경) 尹金淑의 사업실패로 文化村을 떠나 대조동·불광동·홍은동 등으로 유전하면서 3년간 셋방살이를 하게 된다. 1966년에는 대조동에서 불광동으로 이사했다. 金松은 이 곳에서 두 개의 단편을 썼다. 「山 1, 2, 3番地」「佛光洞」이었다. 1967년에는 홍은동 산 1번지로 이사하였다. 주위의 산비탈에는 무허가 주택들이 기막치처럼 박혀 있었다. 홍은동 산 1번지에선 담도 치고 애완용 발발이를 동무삼아 기르면서 14개월을 살았다. 항상 산바람이 잘 날이 없는 산꼭대기에서 流配人처럼 지내다가 1968년 3월 8일, 3년간의 셋방살이를 청산하고 북한산 아래 津寬內里 18호에 집을 사서 이사하게 된다. 60평 대지에 10평짜리 벽돌집

57) 「現代文學」402호(1988. 6), p. 76.

58) 長篇小說로써 1961년 범문각에서 발간

이었다.

한편, 1961년은 韓國文人協會가 탄생한 해이다. 당시 革命政府에서는 一九六一年 六月 十七日 布告令 第六號로써 모든 既存社會團體를 일단 해산시키고 新規로 登錄하도록 했다. 그리하여 同年 十二月 三十日 忠武路 首都女子師範大學講堂에서 統合體인 韓國文人協會가 탄생한 것이다. 金松은 발족 당시에는 會員으로 있다가 그 다음 임원개선 때 監事職을 맡게 됨으로써 韓國文人協會를 이끌어 가는데 중추적 역할을 하게 된다.

1965년 8월 현재 文協任員은 다음과 같았다.

理事長 朴鍾和

副理事長 金玟燮 金東里

常任理事 李鍾桓

分科會長 詩: 申石艸, 小說: 朴榮濬, 戲曲: 李光來, 評論: 趙演鉉, 兒童文學: 李元壽, 隨筆: 趙敬姬, 外國文學: 梁元達

理事 郭鍾元·金南祚·金相沃·金宗文·朴花城·朴弘根·徐基源·辛東門·魚孝善·元亭甲·尹鼓鍾·尹石重·李東柱·李範宣·李永純·李哲範·李炯基·李浩哲·張壽哲·全光鏞·田淑禧·鄭漢模·車凡錫·河有祥·洪曉民

監事 金松, 吳永壽

事務局長 朴常志

一九六五年 八月

(韓國文人協會 編, 前掲書, p. 166에서 引用한 것임)

1969년에는 次男인 眞圭가 金松의 回甲記念으로 「歲月」이란 창작집을 韓一出版社에서 냈다.

## 6. 제 6기(1970~1988) 獨居時代

1970年代 初 尹金淑과 헤어짐으로써 金松은 북한산 아래 津寬內里에서 화단을 가꾸고 나무를 심고 자취생활을 하는 등 獨居時代에 들어가게 된다.

진관내리에 입주한 지 1년쯤 지나서 윤금숙과 봉자네외가 일본에서 아이를 달고 돌아왔다. 그러자, 나의 집은 인구 증가와 동시에 분주해졌다. 집이란 식구가 많

으면 분주하고 재미있고 또 고독하지 않아 살 맛이 있는데 어느 날 내가 외출한 사  
이에 발발이 뽀뽀한 남겨두고 모두 떠나버렸다. (註: 윗점은 필자가 붙였음)<sup>59)</sup>

여기에서 어느 날 외출한 사이는 1969년에서 1973년 사이라고 추정되  
는데, 尹金淑과 막내딸은 이미 미국으로 이민을 간 맏딸 봉자의 초청을  
받아 홀연히 미국으로 이민감으로써 金松과 영원한 동반자가 되지 못했  
다. 金松의 恨 많은 여자관계는 尹金淑과 헤어짐으로써 약 40년간의 막을  
내리게 된다.

한편, 첫 부인 劉今福은 1936년 金松과 헤어진 후 샴바느질 등으로 생  
계를 유지하면서 守節했다. 劉今福은 4남 1녀 중 외동딸이며 둘째로 태  
어났다. 1·4후퇴때 3남 1녀와 조카딸이 함흥에서 남한으로 내려와 경남  
창녕까지 피난, 그 곳에서 長男 金星圭와 만났으며, 지금 현재 서울시 관  
악구 봉천 10동 884~4에서 長男, 며느리, 손자, 손녀와 다복하게 살고  
있다. (1988년 현재 81才이다.)

劉今福은 金松의 生存時에는 生 이별하고 한 번도 만난 일이 없었으나  
돌아가신 날 스스로 검은 상복을 입고 喪家에서 주검과 만난 것이 처음이  
고 마지막이었다.

趙成女는 1950년을 전후하여 金松과 헤어지고 난 후 유치원을 경영하  
면서 金松의 어린 자식들을 工夫시켰으며, 長女 己蘭과 次男 眞圭를 결혼  
까지 시키는 등 그의 자식을 친자식처럼 길러 왔다. 1975년을 전후하여  
고부간의 갈등과 아이들의 生母가 서울에 가까이 있다는 점 등으로 마지  
막까지 붙잡아 둔 次男 金眞圭와도 헤어지고 미국으로 이민 갔다. (그녀  
는 6.25동란 후 長女 金己蘭은 결혼식을 올려 시집 보내고, 長男 金星圭  
는 生母에게 보내고 줄곧 次男 金眞圭와 함께 미국 이민갈 때까지 살았  
다.)

詩人 金時哲의 깃구처럼 金松의 人生은 「수많은 사슴을 쫓으시다 결국  
은 한 마리도 붙들지 못한 / 참으로 당신께서는 / 그림 속 우화같은 인  
생」<sup>60)</sup>이 되어 버렸다.

비록 가정은 풍지박산이 되었지만 文學에 대한 情熱은 변함 없었다.  
이 때를 전후해서 金松은 자기의 고독을 달래기 위하여 「獨處記」를 집필,  
1972년 2月號에 「현대문학」誌에 발표했다. 그리고 여행도 즐겼다.

59) 新東亞(80. 8), p. 381.

60) 「現代文學」402호, (1988. 6), p. 77

시인 毛麒允과 설악산 단풍 구경을 한 후 산에 대한 3개의 소설을 써서 발표했다. 「雪岳山」〈現代文學 193(71. 1)〉, 「北韓山城」〈현대문학 198(71. 6)〉, 「山城入口」〈현대문학 222(73. 6)〉등이다.

1973년 가을 북한산을 떠나 화곡동 아파트(강서구 화곡동 359-76)로 옮겼다. 그곳(진관내리)에서는 연탄가스 중독으로 신경마비 증세와 보행이 불편할 정도로 되었기에 할 수 없이 화곡동 아파트로 옮기지 않으면 안되었다.

그의 유일한 친구인 뽀삐는 아파트 관리사무소의 경교로 작별하고, 북한산 일대를 무대로, 뽀삐를 소재로 한 장편소설 「犬族風月」을 썼다. 이것은 뽀삐에 대한 金松의 연연함을 나타낸 것이다. 이 작품은 「月刊文學」(76. 1~12)에 12회 연재되었다.

화곡동으로 옮겨온 뒤에는 종래의 居士 생활을 지양하고 아침을 먹고 나면 아파트를 나와서 종로의 다방을 찾곤 했다. 交友들과 담소하며 답답증도 풀고 보행 연습도 하기 위해서였다. 당시, 화곡동 아파트는 화곡별관 한 가운데 세워진 빈민 아파트였다. 12동 3백 84가구의 주민들은 시내에서 발붙일 곳이 없어 흘러온 사람들로써 영세민이었다. 金松은 이곳 사람들의 애환을 그린 「西山里 哀詞」 「西山너머」 「棺 속의 愛人」 등을 써서 발표한 바 있다.

1972~1973년 무렵에 文壇에서는 全國小說家協會가 탄생했다. 金松은 조연현, 박연희, 곽학송 등의 추천을 받아 이 협회의 창립총회에서 회장으로 선출되었다. 부회장에는 林玉仁, 朴淵禧, 鄭漢淑, 총무에는 朴敬洙, 사무장에는 劉賢鍾 등이었다.

金松의 末年은 獨居生活이 계속되는데 제일 고통스러운 날은 매년 음력 7월10일이었다. 이 날은 金松의 생일로써 제각기 가정을 가지고 있는 3男妹가 생일 잔치를 할려고 하기 때문이다. 생일이 다가오면 2~3일간의 일정으로 여행을 떠나곤 했다. 자식들의 수고와 낭비를 절약하고 자기의 추한 모습을 가족들에게 드러내지 않기 위해서였다.

그런데, 1978년의 七旬 잔치는 도저히 피할 수 없어 응하고 말았다. 金松은 七旬 잔치날 제목이 분명치 않은 시를 한 편 썼다.

느티나무 위에선 까치들이 울었지  
 보리밭에선 종달새들이 날았지  
 강변 백사장에선 삼살개들이 놀았지

순박한 사람들이 모여 살던 내고향  
 작순에는 올봄도 꽃바람이 불었을까?  
 칠십 년 모진 세월은 머리만 자꾸 새어  
 늙어가는 외로움을 달랠 길이 없고  
 오늘 밤도 귀뚜라미 소리에 잠 못 이루네<sup>61)</sup>

고향을 생각하며 오늘을 외롭게 사는 그의 생활의 단편을 그린 시라고 생각된다.

1973년 화곡등으로 이사 온 후 약 10년간을 셋방으로 전전하다가 1984년 5월 17일, 성북구 정릉동 252번지 12호로 이사한다. 金松은 비로소 정릉시대에 돌입하게 되는 것이다.

金松은 정릉 셋방에서 새벽 4시이면 어김없이 일어나 찬물에 세수하고 작품 창작에 몰두하였다. 6시쯤이면 동네 산책을 하며 맑은 공기를 호흡한 후 돌아와 손수 밥을 지어 먹는다. 그리고는 하루도 빠지지 않고 시내에 외출을 한다. 종로에 있는 다방을 출입하면서 제자, 후배 交友들과 交遊하기를 즐겨 했다. 점심은 시내에서 買食하였다. 오후 3시쯤 되면 귀가하여 저녁밥을 짓고 독서를 하면서 규칙적인 생활을 하였다.

1986년 10월 11일, 정릉동 830번지 2호 청수 연립 가동 102호로 이사를 하여 獨居 生活를 계속하다가 1988년 4월 25일 80세를 一期로 외로이 死亡했다.

그런데 金松의 死亡日과 死亡時가 정확하지 않다. 金松의 주인집 아주머니에 의하면, 1988년 4월 24일은 金松이 시내에 외출하지 않았다. 4월 25일은 중 1년인 딸 錦珠의 소풍날이라, 아침 일찍 주인집 아주머니<sup>62)</sup>는 김밥을 만들어 딸에게 부쳐 보내고, 남은 김밥을 혼자서 자취하며 생활하는 할아버지(金松)에게 드릴려고 방문을 열어 보니 아무 대답도 없이

61) 新東亞(80. 8), p. 392.

62) 金松은 사망하기 약 1개월전 미발표원고 「生活漫筆」(3일간의 일기문, 3월3일/3월13일/3월22일)을 남겼다. 그중 3월 13일의 일기문에 주인집 아주머니의 착한 마음씨에 대하여 이렇게 써어져 있다. 「이집 아주머니는 自活力이 강한 여인이다. 中一의 딸 錦珠의 학자도 대고 無識 酒癡의 남편도 먹여 살리기도 하는 無言의 착한 女家長이다. 아침은 콩한준과 라면 반쪽을 먹고, 점심을 매식하고, 저녁은 라면 반쪽을 먹고 사는 나한테 가끔 최고기국과 매운 김치를 해시하는 착한 여가장이다. 학교에도 못다니고 고등교육도 못 받았지만, 少女시절에 그 어머니의 가정교육이 착실했던 모양이다.」

자고 있었다. 낮 12시쯤 다시 김밥을 데워 金松에게 드릴려고 문을 열어 보고 나서야 死亡을 확인하고 유가족에게 급히 연락함으로써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다.

金松이 88년 4월 23일 낮에 외출한 것까지는 확인이 되었으나, 귀가한 오후 3시 이후부터 生死 확인되지 않고 있다가, 4월 25일 낮 12시경 비로소 死亡을 확인하였으니 死亡日과 死亡時를 정확하게 알 수 없다. 다만 4월 23일 오후 3시 이후부터 4월 25일 낮 12시 사이에 死亡하였음을 推定할 수 있다.

시체를 검사한 의사(이름, 나이, 어느 병원 의사인지 미상)는 <4월 24일에서 25일 사이에 심장마비로 인한 死亡>이라고 진단하였다.

사망 원인도 한 때는 여러 가지 說이 나돌았으나 유족측에서 입관할 때 시체에서 썩은 냄새도 나지 않고 부패 흔적이 없기 때문에 「노환」이 아닌 「심장마비」로 결론 지었다. 신문지상에는 사망원인이 「노환」이라고 보도되었다.

비보를 듣고 달려온 유족측은 회의를 열고 연락처의 순조로운 연락 때문에 4월 25일을 사망일로 잡고(사망 시간 미상) 3日葬으로 결정, 4월 27일 장례식을 치렀다. 葬地는 경기도 용인 공원 묘지이다. 원래 文人葬으로 치를 계획도 논의되었으나 절차가 복잡하고 유가족의 뜻에 따라 가족장으로 치루었으며, 조경회 예총 회장과 한국작가협회에서 조화를 보내 왔고, 문인협회, 소설가협회, 펜클럽 한국 본부에서 화환을 보내 왔다. 그리고 다수 文人이 문상하였다.

문상을 다년간 文人은 다음과 같다.

- (1) 詩人——具常, 金奎東, 金大成, 金時哲, 文德守, 石桂香, 安章鉉, 柳光烈, 李光碩
- (2) 小說家——朴淵禧, 朴容淑, 吳仁文, 玄在勳
- (3) 評論家——李光勳
- (4) 隨筆家——李氣鎮 등

특히 여기에 참석한 文人들은 金松의 死亡을 애도하면서 文人葬 대신에 家族葬으로 장례가 치루어지니 만큼 별도로 「現代文學」誌 402호 (1988년 6月號)에 追悼辭라도 게재하기로 결정, <金松 先生 追悼 特輯>으로 年譜 弔詩 追悼辭 등이 게재된 바 있다.

## 三. 結 論

以上과 같이 金松의 生涯를 살펴 보았다. 金松은 日帝時代에는 「地獄」이라는 회곡으로 日帝에 저항했고, 解放이 되자마자 「白衣民族」 「배달」을 상징하는 民族陣營誌 「白民」을 發刊하여 많은 文人을 배출하였으며, 6·25사변에는 전쟁의 와중에도 「文總求國隊」에 참여하는 등 오직 民族文學 건설에 이바지하여 왔다. 1940년 초에 소설로 轉向하여 120여 편의 小説을 生命이 마지막 다하는 날까지 집필하고 發表한, 오직 문학을 위한 삶을 산 작가였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와 반면에 옳은 家庭하나 지키지 못하고 집시처럼 방황하다가 끝내 언제 死亡했는지조차 모를 정도로 외로이 삶을 마감한 「悲運의 나그네」였다.

그런데 金松의 生涯 研究는 여러 가지 참고 도서와 주변 인물의 證言을 토대로 이루어졌으나 제일 어려운 것은 연도 추적이었다. 참고 도서마다 다르고, 金松 자신의 발표지(發表誌)마다 다르게 주장하니, 이것의 진위(眞僞)를 확인하는 데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했다. 가능한 한 모든 것을 정확하게 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자료를 참고로 하여 일단 마무리를 해 보았다. 혹시 틀리는 부분이 나오면 훗날 고쳐 바로 잡을 생각이다.

(證言者)

金星圭(56. 長男 小說家)

朴淵禧(70. 후배文人 小說家)

金昌麟(54. 후배文人 시나리오 작가)

## 參 考 資 料

權寧珉：韓國近代文學과 時代精神, 文藝出版社, 1983.

\_\_\_\_\_：韓國現代文學史年表(1)(2), 서울大學校出版部, 1987.

金東里 外 11人：韓國文學大事典, 廣曹出版社, 1980.

金 松：수필 「以北斷想」, (白民 49. 3)

\_\_\_\_\_：四〇年間の 文藝誌 - 白民一, 思想界1960. 12

\_\_\_\_\_：배달을 상징한 「白民」과 解放文壇 外, 現代文學 128, 1965. 8

- \_\_\_\_\_ : 나와 「白民」시대, 대한일보, 1970. 5. 23~6.11.
- \_\_\_\_\_ : 自傳의 文藝半世紀 ①~⑨, 新東亞, 1979. 12~1980. 8
- \_\_\_\_\_ : 生活漫筆(미발표 원고), 1988.
- 金時哲 : 대하소설같은 삶을 幕내리시니, 現代文學 402, 1988. 6
- 김용성 : 한국현대문학사 탐방, 현암선서 74, 玄岩社, 1984.
- 金允植編 : 韓國現代文學年表, 文學思想社, 1988.
- 朴淵禧 : 부디 정토에서 편히 쉬십시오, 現代文學 402, 1988. 6
- 朴容淑 : 金松선생의 人間과 文學, 現代文學 402, 1988. 6.
- 白 鐵 : 韓國新文學發達史, 博英社(博英文庫 50), 1980.
- 柳炳奭 : 沈薰의 生涯研究, 국어교육 14, 한국국어교육연구회, 1968.
- 陸軍本部從軍作家團 : 戰線文學, 創刊號, 1952. 4.
- 李御寧 : 韓國作家傳記研究(上), 同和出版公社, 1975.
- 李炯基 · 曹南鉉外 : 韓國文學概觀, 語文閣, 1988.
- 正統韓國文學大系 53 語文閣, 1988. 金松年譜
- 조동일 : 한국문학통사5, 지식산업사, 1988
- 趙靈巖 : 韓國代表作家傳, 廣文社, 4291(1958)
- 韓國文人協會編 : 解放文學 20年, 正音社, 1966.
- 鵲村 慶州金氏家乘
- 金松의 주민등록표 초본(88. 4. 25 서울 성북구 정릉 제4동장 발부)